

書評 : 한국미술사학회 편

『표암 강세황-조선후기 문인화가의 표상』 (경인문화사, 2013)

진준현*

이 책은 조선후기의 대표적 문인화가인 豹菴 姜世晁(1713~1791) 탄신 30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모두 7편의 글과 질의문, 그리고 말미에 종합토론 내용까지 수록되어 현재 학계에서 강세황에 대한 연구상황의 중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편의 글은 변영섭, 「문화의 시대에 다시 읽는 강세황」, 박은순, 「고와 금의 변주」, 강관식, 「표암 강세황 초상화의 실존적 맥락과 의관 도상학」, 백인산, 「표암 강세황 사군자화의 의미와 위상-난죽화를 중심으로」, 이완우, 「표암 서풍의 기반」, 민길홍, 「18세기 화단에서 표암 강세황의 위상」, 정은주, 「중국사행에서 강세황의 시화창작과 인적 교류」 등인데, 각기 산수화, 초상화, 사군자화, 서예, 그리고 당대 화단에서의 위상과 중국사행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각 편의 글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영섭(당시 문화재청장)의 「문화의 시대에 다시 읽는 강세황」은 구체적 미술사적 분석 보다도 거시적인 입장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동양의 문인화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 시서화를 겸한 강세황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21세기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1세기가 20세기 서구문명 일변도에서 벗어나 서서히 동양문화의 재평가와 부활이라는 시대적 추세가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예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인물로서 강세황 예술의 현대적 의미를 지적한 점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강세황 연구의 기초를 다진 필자의 오랜 연구와 사색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 박은순의 「古와 今의 變奏」는 부제를 “표암 강세황의 사의산수화와 진경산수화”라고 달고 주로 〈표옹선생서화첩〉, 〈풍악장유첩〉, 〈피금정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古는 寫意山水畫의 지향음, 今은 眞景山水畫의 지향음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강세황

* 서울대박물관 학예관

사의산수화의 특징은 臨今探古와 倣作이라는 수단을 취하였고, 詩意圖와 시서화 삼절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되었으며, 그 성격과 추구하는 바는 奇絶하며 生而不俗(서투르기에 속되지 않고 자평)이었다고 요약하였다. 그리고 강세황 진경산수화의 특징은 日常性和 常境을 추구한 결과 卽物寫景이 많았고, 평생 公人의식을 지냈기에 宦遊의 기록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화풍상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18세기말 사실적 진경산수화의 유행과 정립에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맺음말로써 강세황은 운두서를 계승하여 朝鮮儒畫를 정립시켰다고 하였다. 이밖에 이 글에서는 <풍악장유첩>의 몇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종래 지명미상으로 알려졌던 제11면의 작품이 ‘의관령(義館嶺)’을 그린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박은순의 글은 강세황의 산수화 이해와 연구가 종래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강관식의 「표암 강세황 초상화의 실존적 맥락과 의관 도상학」은 조선시대 화가 중 가장 스스로를 많이 그린 강세황의 자화상, 그리고 다른 초상화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강관식은 이 글에서 衣冠 圖像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초상화에 그려진 복식과 관모가 강세황의 시기별 자의식과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초기 불우한 禁錮의 시기를 烏巾像으로 표현하였고, 出仕와 벼슬살이 시기를 宓巾像으로 표현하였고, 得意한 揚名 of 시기에는 紗帽像으로 자신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강관식은 치밀한 작품분석과 당시 상황에 대한 사료를 고증하여 잘 짜여진 하나의 의미설명 구조를 완성하였다. 이런 분석은 한국 초상화 연구사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인수가 지적한 대로 ‘오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초상화에 그려진 것이 또한 불명확하여 재론의 여지 또한 분명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백인산의 「표암 강세황 사군자화의 의미와 위상-난죽화를 중심으로」는 강세황의 사군자화를 난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강세황은 사군자 중 난죽에 중점을 두었으며, 명청대 화보류에 근거를 두었으나 여유로운 화면 구성, 확고하고 명료한 필치, 외유내강의 미감 등 자기화풍을 정립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강세황은 확고한 문인의식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사군자화의 이론적 양식적 기준 정립하여, 이후 사군자화가 화단의 주류로 부상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백인산의 논고 중 아쉬운 점은 뒤에 안휘준의 총평처럼 사군자화의 양식전 전개과정의 설명이 빠진 점, 그리고 이선옥의 질의에서 지적된 바 묵매도, 그리고 묵국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다. 백인산의 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다른 논고와 달리 본문에는 삽도 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도판이 실리지 않은 점이다. 이 점은 이 단행본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작은 흠결이라 하겠다.

이완우의 「표암 서풍의 기반」은 강세황의 서예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우선 강세황의 글씨와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하고, 해서, 행서, 초서, 그리고 예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

후기 서예사에서 고전 서예전통을 꾸준히 견지한 점, 그리고 옛필법 터득키 위해 가까운 시대부터 단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에서 특징과 의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완우의 글에서 한 가지 지적되는 점은 231쪽에 인용된 『표암유고』에 실리지 않은 「논서」 번역문은 『표암 강세황』(예술의 전당, 2003)에 수록된 번역문과 상이하여 내용의 이해에 다소 착오가 생긴 점이다.

민길홍의 「18세기 화단에서 표암 강세황의 위상」은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의 실무자로서 강세황의 화단에서의 위치를 재점검 해본 글이다. 민길홍은 현재 ‘예원의 총수’로 흔히 지칭되는 것이 현대의 최순우, 이동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적절성을 조선시대 각종 기록의 검토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강세황은 18세기 화단에서 시서화 삼절로서, 활발한 감평 활동을 통해서, 또 김홍도와 신위의 스승으로서 남다른 확고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 글에서는 처음 공개된 〈균와아집도〉에 대한 소개와 설명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은주의 「중국사행에서 강세황의 시화창작과 인적 교류」는 강세황이 청나라 건륭제 천수연에 참석하 것과 관련해 전해지는 시서화첩과 자료들을 검토하여 노정에서 그린 고목죽석도와 실경산수화가 후대에 영향을 끼쳤으며, 북경에서 공적, 사적 활동과 관련 시화, 〈唯能爲也帖〉과 북경에서 교류 인물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분석하여, 강세황 연구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켰다.

이상 대략 살펴본 것처럼 『표암 강세황-조선후기 문인화가의 표상』은 7인의 글을 통해 18세기의 대표적 문인화가인 강세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는 바탕 위에 산수화, 초상화, 사군자화, 서예, 연행과 관련된 활동상, 시대적 위상 등에 대한 진전된 연구성과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각 발표자에 대한 질의자, 그리고 안휘준이 총평에서 지적한 데로 아직 더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한 사람의 화가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단행본으로 엮어진 점에서 한국미술사학계의 발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